

제 목	국 문	일부 제조업체의 노동강도강화와 건강장해양상	
	영 문	Changes in Work load and Disease Patter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손미아 ¹⁾ , 백도명 ¹⁾ , 이윤정 ¹⁾ , 김창엽 ²⁾ 1)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영 문	Son mi a ¹⁾ , Paek do myung ¹⁾ , Lee Yoon Joung ¹⁾ , Kim chang yeoup ²⁾ 1)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age of medicine, seoul natkonal university	
분 야	산업보건	발 표 자	손미아(전공의)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95 년 12 월		
<p>1. 연구 목적</p> <p>최근 몇년전 부터 대부분의 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신경영정책”으로 대표되는 노동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신경영전략은 공정의 합리화, 노동력 이용방식의 유연화, 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이러한 정책의 도입은 노동과정의 변화를 가져와서 작업라인 증가로 인한 작업속도의 증가, 휴식시간 및 여유시간의 감소, 나쁜 작업자세등이 증가되고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p> <p>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일부 제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강도강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노동강도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양상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p> <p>2. 연구 방법</p> <p>일부 대기업 및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과정과 건강장해 양상의 년도별 변화를 파악하였다.</p> <p>작업장 관찰, 공장책임자 및 작업자와 면담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노동정책의 변화양상이 노동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노동강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① 노동시간 ② 작업자세의 변화 ③ 공정라인의 속도변화정도 ④ 기계설비의 변화 및 1인당 기계보유수의 변화 ⑤ 작업자수의 변화 ⑥ 임금제의 변화 ⑦ 생산관리의 변화 ⑧ 소집단 활동의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매출액 추이와 생산량 추이와 관련한 작업장의 물적 생산성추이를 파악하였다.</p> <p>건강장해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①산재율 및 산재양상의 변화 ② 의료이용율 및 내원환자 질병의 변화 등을 이용하였다.</p>			

3. 연구결과

1) 노동과정의 변화

90년이후에 노동정책이 변화한 한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93년에는 주당 48시간에서 94년에 49시간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에 시간당 물품 생산이 32개에 불과하던 것이 1994년 9월에는 60개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건강장해의 변화

(1) 산재율의 변화

노동부에 공식 산재요양신청서를 낸 산재건수만을 대상으로 90년 이후에 노동정책이 변한 한 사업장의 산재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최근에 들어와 산재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92년 재해율 0.92 93년 재해율 1.5 94년 재해율 1.54). 또한 염좌로 인한 산재양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립부, 시설부, 사시부등 반복작업 부서에서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2) 의료보험조합 자료를 중심으로 동일 사업장의 년도별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 피보험자의 1인당 내원(입원+외래)건수가 전체 의료보험조합의 직장 피보험자의 1인당 내원(입원+외래)건수보다 더 높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 증가양상을 보면 전체 의료보험조합 직장 피보험자의 증가양상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위의 사업장 피보험자의 경우 90년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표 1. 1인당 내원건수의 년도별 변화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사업장 피보험자	0.49	2.10	1.85	1.98	2.06	2.59	2.79	2.80	2.44	3.13	2.86
전체직장 피보험자	1.82	1.97	2.02	2.10	2.19	2.40	2.54	2.57	2.69	2.77	

또한 생산직노동자가 사무직보다 1인당 내원건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생산직의 1인당 내원건수는 92년 3.15, 93년 3.80 94년 4.72 인 데, 사무직의 1인당 내원건수는 92년 2.33, 93년 2.39, 94년 2.76으로 생산직 노동자의 의료이용율이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질병별 1인당 내원건수를 분석한 결과, 반복작업과 라인공정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질환과 손상의 경우 사업장 전체인원의 1인당 내원건수의 년도별 증가율이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보다 높았으며, 생산직의 경우년도별 증가율이 사무직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4. 고찰

연구결과, 최근에 작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노동강도강화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장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향후 노동과정의 분석과 반복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접근 및 전향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